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購讀料 壹部(朝夕刊)金五錢 夕刊壹個月先金壹圓廿錢 一個月先金壹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拾四字壹行壹圓 鐵欄內貳圓四號九字壹行壹圓 八拾錢貳號七字壹行貳圓 揭載指定料五號每壹行參拾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容九
發行所 朝鮮日報社

論說

辭任에臨하야

朝鮮日報社長 李商在

一

往年秋에 現朝鮮日報社의同人諸君이 朝鮮日報社를革新할에臨하야 余를促하야그社長의任에就하라하니 余는老齡이그位에不適함으로써辭하얏스나 諸君의促함이切하고 余ㅣ또한그意氣에感한바잇서서 畢竟菲材로써 그任에就하엿든것이다 伊來四閱年에 가추어諸般의艱困을치르는中 諸君의奮鬪도컷섯고 社運이또한얼마콤發展된바만혓섯나 余는이에일즉부터任을解하고그實을免키를希望하엿스나 諸君의勸止가항상懇切한故로 因循하야今日外지왓섯다 그러나 方今老病이祟를지어그任을完全히할수업스니余는다시朝鮮日報의同人諸君에게囑하야 그實을벗기를期한바이로라 惟컨대時局艱困한이때에잇서서 言論機關으로서 任務가더욱重大한바잇고朝鮮日報의使命도 얼마서尋常치아니한바잇스니 余의老病으로써 實로그職을曠廢하는 嫌이업지아니한지라今日로써그責을벗는것은깁히滿足하는바이로라噫다朝鮮人이잇는곳에 朝鮮人의運動이잇슬것이오 朝鮮人의運動이잇는동안朝鮮日報도또한그使命으로하는바를버릴수업슬것이니 同人諸君의倍前하는誠意와努力을囑하고 또天下의民衆의信任과擁護가길히여기를떠나지안키를心祝할연이로라書도써盡言치못하고 言하되盡意치못할것이라이로써擱筆하노라

革命軍占領後의上海

一

中國革命軍이武漢을占領한後의第一目標는 上海 南京이요第二目標는 北京이요 第四目標는 奉天이라하겟다 그런데革命軍은 지금上海를占領하엿스니 南京의占領이아즉完成되지못하엿다할지라도 革命軍은그로써 第一段의成功을보앗다고할수잇는것이다 만일그들이一定한地域을占領한後에 그行政에成功하지못한다면 今後의進展에大障碍를招來할수잇는것이다 革命軍이昨年七月二十四日에 北伐을始作한後 겨우半個年에 中國의三分二를차지하게되엇스니 그는그들의戰取한地方의잇서서의有效한行政이向地의民心을收拾하기에 足한바잇섯기때문이다

二

우리는 上海의占領이順順히達成되엇다는것이 革命軍의이占領地行政의成功의結果이라고본다 現下中國에잇서서 漸次革命軍의理想이理解되게되는것은 勿論이니 그는單純한私腹을채우려고하는 北方의軍閥들과는 그規模를달리하는것이라고보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이點은 누구나다承認하지아니할수업는바이다 그러나 만일그들의理想만조코 實行이그와同伴되지안는다하면 到底히圓滿한成功을볼수업는것이라고하겟다 또이잇다하더라도 經驗이그에附隨되지못하면 實地에나타나는結果가 그에相應하지못하는境遇에는 民心을잡으로收拾할수업는것이라고하겟다 그成功으로因하야 外로向하여서는諸强國을戰慄케할수잇고또는弱小諸民族의同意를어들수잇는것이다 勿論힘이不足한곳에잇서서는同類의援助를바들수잇는것이겟지마는 爲先自己自身이最善의努力을하여야할것은 勿論이겟다

三

이러한點으로보아서 今番上海에잇서서의革命軍의行政如何는 크게注意하지아니치못할바이겟스니 上海는東洋에잇서서의最大意味의世界的都市이니거긔에잇서서의一擧一動이 가장迅速히世界列國人의眼前에展開되고 얼마서世界的輿論을形成하는重要한資料가될것을밋는바이다 上海에잇서서의革命軍의行政이 諸强國의畏敬을밧게되고諸被壓迫民族及諸被壓迫階級의信賴를밧게되면第二段의北京及第三段의奉天의戰取는매우容易히決行될것을생각할수잇는것이니우리는 그에對하야細密한注意로써對하엿섯다 그런데그

四

뒤의進行의經過를보건대 黨軍의平素의訓練에 어그러짐이업시매우規則的으로每事가進行되는것을봄에 우리는 中國革命의前途를爲하야 더욱信賴의念을가지게된나

上海를占領하든當日에 國民黨上海特別市部는 二十二個條의宣言을公布하야 그政策을明白히하야 人民으로하여금 歸向할바를알게하고 司令官은外人을絶對保護할것을 明言하엿스며 秩序가二三日中에完全이恢復될것을말하야 民心을收拾하기에努力한바잇고 掠奪等의行爲가演出되는것을틈타지못하고總罷業도 一定한期間을限定하야斷行하엿스니 足히써從今以後의革命軍의所向地의民心을收拾할수잇슬것이라고볼수잇다 用兵의要는 多數의民衆의마음을收拾하고 少數의反動分子를威脅하는데잇는것이니 革命軍은上海占領에依하야 그것을明白히例證하것이라고할수잇다

革軍占領後 南京混亂詳報

驅逐隊司令의報告

(東京電) 南京二十四日驅逐隊司令報告

一、山東軍은二十三日夜虹口로逃하얏는데銃聲은不絶하고南京下關에掠奪이甚하야二十四日午前四時半頃부터南軍은南門으로부터續續城內에入하기始作하얏는데日本領事館附近에는盛히銃聲이起하며

二、二十四日未明에下關에大火災가起하야南軍은楊子江을沿하야虹口日淸汽船의「헐크」(미리鐵條網을張하고棧橋를廢하엇슴)에殺到하는데陸戰隊指揮官은되도록隱忍自重하야穩便히彼等을退却시키고자하엿스나其後續續來襲하는南軍으로因하야驅逐艦桃乘組一等機關兵後藤龜喜는逐히犧牲이되엇스며銃彈은益益飛來하야「헐크」를守備키가困難함으로本官은下關의避難民及虹口의陸戰隊全部를桃에避難시키엇스며

三、英國領事館에서軍艦에避難한者는英、米、佛、瑞、諾各一名으로其言에依하면南軍은英國領事館에殺到하야領事와港務部長을射擊함으로彼等十名은一團이되어城壁을越하야脫走하얏는데內六名은行方不明이되엇스며

四、午後二時半中國軍艦三隻이上流로부터下來하야悠悠히虹口로부터온陸戰隊全部를避難시키엇고

五、英艦은午前七時半부터午後三時四十分外지砲擊을開始하기外지南軍에게開斷업시銃彈의浴을受하얏스며

六、午後三時四十分에英艦「에메랄드」와米驅逐艦三百四十五號는山東軍을射擊하는中인데英米艦의城內砲擊이開始되자中國軍艦은艦首를轉하야上流로逃하얏고

七、日沒後英米軍艦은探照燈을點하야陸上을警戒하며

八、右混亂中에英米佛軍艦各一隻이入港하얏고

九、午前九時獅子山에잇는砲臺에靑天白日旗가揭揚되엇스며

十、二十三日來火災가各處에起하얏고廿四日午後八時虹口에大火災가잇서悲壯을極하얏스며

十一、城內의模樣은姑不明

反革派財產沒收 十萬市民決議

二十三日閘北에서

(上海廿四日發) 二十三日午後一時에閘北에서北伐軍市民大會를開催하얏는데 會衆은十萬에達하는바左의決議를하얏더라

一、國民政府의上海租界回收
一、反革命派財產沒收

日駐在武官 銃劍에被刺

射擊을受하야

(上海二十五日發) 廿四日午前七時日本領事館은南軍一齊射擊을受하야警察署長은左腕에貫通銃傷을受하고駐在武官根本少佐는背部와臀部를銃劍에被刺하야軍傷을하얏는데領事는無事하더라

南軍侵入 日機關兵慘死

兩軍은交戰

(南京二十四日發) 二十四日[illegible]下關에南軍이侵入하야各艦는모다數發小銃彈을受하엿스며又日淸汽船「헐크」에잇든桃乘組一等機關兵後藤龜喜는流彈에中하야卽死하엿는데下關의避難日本人全部를本隊로收容하엿스며領事館은廿四日午前七時까지는無事하엿스나其後의狀況은不明이나아마安全한듯하며目下南軍이交戰中으로下關浦口는火災가起하엿더라

日領館被襲

書類는無事

(南京二十五日發) 南京城內日本領事館及在留民은一物도남기지안코掠奪되엇는데生命에는異常이업고輕傷者二名을出할뿐이며重要書類는無事하더라

城津貿易

二月中槪況

咸北城津港二月中貿易狀況은一月中移出輸七四九、六二五圓에比하면十七萬餘圓이減少되고移入額은二五三、一九五圓에比하야二萬二千餘圓이增加되엇는데槪況은如左하다더라(城津)

移出 品目▲大豆三一、三二三石五四六、五三〇圓▲小豆四四石七九二圓▲生牛一六五頭一七、五〇〇圓▲肥料七六八個(百斤入)六、七八七圓▲其他諸品五、六〇〇圓▲合計五七七、二〇九圓

輸入 品目▲砂糖一五、一五〇斤一、八七四圓▲麥粉一三六、九〇〇斤一七、七五〇圓▲綿絲其他織物六七六四〇〇圓▲罐寸四八〇打二四〇三圓▲印刷紙七、八〇〇斤一、九二〇圓▲其他紙物二八八圓▲시멘트三、〇二一個(百斤入)四三六〇圓▲陶器類八〇七圓▲鐵物一五三二三斤一、七四一圓▲機械類三八三圓▲小包郵便物六四六二圓▲其他諸品二四、一一四圓▲合計二三六、一七九圓

臨時總會

六條項을決議 利原記者團

咸南利原記者團에서는去廿日臨時總會를開催한後議長黃尙海氏司會下에左記事項을決議하는同時에任員을改選하고無事閉會하엿다더라(利原)

◇決議事項
一、時代日報記者除名에關한件
一、未入會員中外日報記者에關한件
一、支分局記者制限에關한件
一、文事事件에關한件
一、本團事務室建築의件

◇任員氏名
▲團長黃尙海▲庶務部金佳燮李昌濂韓仁澤▲調査部申台曦金是鉉李柱鶴

鐵道網第一年度 建設工事의內容

咸鏡線은來年七月開通 ◇……新田工務課長談

日本議會의豫算確定과共히鐵道局에서는十二個年計劃으로서總工費三億二千萬圓을投하야國鐵一千餘哩를延長할터인데渡東中의大村局長、林經理課長이月末歸任하면直히實行豫算編成에移하야早速히此의建設又는改良工事의實行에着手할터인데然而二年度豫算에起工할建設改良工事의主한者에就하야新田工務課長은既定計劃線은咸鏡線의殘工事即端川群仙間二十哩吉州極洞間二十哩居山新北靑間八哩를今年中에開通케할터이며且最難工事인十八工區의隧道工事도近近着手하야來年七月에는竣工과共히咸鏡全線의開通을見할지며平元線에在하야는今年中西浦舍人間十四哩는完成하야營業開始와共히更히舍人場順川間十五哩의建設에着手할터인데新規計劃線乃至十二個年計劃의新線에對하야는雄基를起點으로하는圖們線에主力하고訓戎에至하는間五十哩를二工區에分하야昭和五年度에竣工할豫定으로起工할터이며元山으로부터起하는東海線은一工區뿐으로殘餘의滿浦線惠山線은總히今春부터着手의實測終了를待하야二年度以降起工豫定이며慶全線도同樣인데單히全北線買收는私鐵買收法案의確定과共허二年度中에行할터이고建設改良工事도着手하기로되엇다더라

城津普校에 『라듸오』設置

同校友會에서

城津公立普通學校校友會에서는去廿一日定期總會를開하고役員改選其他事件協議가잇슨것은旣報한바어니와同會에서는特히母校를爲하야이미多大한努力과援助가잇섯는데今般에다시母校에『라듸오』를架設하기로決議하고金額은二百圓假量爲限하고校友會員은勿論一般에게寄附를募集하기로하고着着實行에努力中인데同會는設置以來母校를爲하야盡力함이만흔中年年一次式開催하는運動會도校友會의後援과活動이不少하다더라(城津)

海月神師의 百年紀念式

利原郡中央宗理院에서는去二十一日正午에海月神師의滿百年紀念式을宗理師金仲三氏의司會下에神師의經歷大旨를孔始祐宋晃聖李鍾哲諸氏가說明한後一同은讚頌으로閉會하엿다는데當日에集會한人員은三百餘名에達하야盛大히紀念式을擧行하엿다더라(利原)

雄基經由大豆

昨一年中雄基港을經由하야外地에輸出된大豆石數는無慮十六萬餘石에그價格이百七十六萬餘圓에達하야前年보담石數로二萬餘石價格으로二十二萬餘圓이增加되는바大豆輸出石數로는雄基가本道內에서最首位를占하엿다더라(雄基)

農村副業 組合創立

永興有志들이

咸南永興郡德峴面美陽里를中心으로하야當地有志靑年黃昌心氏外諸氏의發起로農村共興副業組合을去廿五日에組織하고總資金二千圓豫算으로口金을各方面으로活躍募集한結果良好한成績을어덧슴으로不日間에創立大會를開催할터이라하며副業種目은如左하다더라
一、[illegible] 三、家畜 [illegible] 五、農業 [illegible]

普校設立과 金海郡守의失言

鼎山面民은憤慨

慶南金海郡鼎山面에는아직外지公立普通學校의施設이업서一般住民은兒童就學上大難關으로하고昨年以來로金海郡守에게實地交涉한結果同面住民이設立費中六千圓만負擔하면昭和二年度에는四學級制公立普通學校를設立하야주마하는承諾을得하고同內住民들은卽時鼎山敎育會를組織後全心全力을다하야活動한結果今日에는金額全部가積立되야一日이라도速히豫期의學校가實施되기를苦待하고잇든中突然金海郡守는豫算關係上二學級制普校밧게設立하지못하겟다함으로이에對하야는一般住民은크게不滿外입에不滿을품고去廿日鼎山敎育會總會를開하고委員으로崔範倫、宋斗用、梁銀鉉、姜鍋文、朱銷模、尹圭炳諸氏를推擧하야慶南道當局에派遣交涉케하엿다더라(金海)

玄德水利組 地主側反對

實現은困難

振威郡玄德面水利組合創立說이實現된다함은本報에旣報하엿거니와去十七日同面事務所內에서面長李鍾合氏司會로水利組合實行委員鄭雨興氏와佐藤象次郎兩氏의參席으로蒙利區域地主總會를開하고其同意를求한바一般地主들은何等水源이無한乾地에貯水百町步에三百餘町步가蒙利키不能하다는理由와又는土地每斗落에對하야水稅三圓以上을擔保하고는收支相償이못된다는理由로强硬히反對하엿슴으로該地主總會는有耶無耶中에散會되엇는데水利組合의實現은到底히困難하리라더라(平澤)

釜山記者懇談會

記者團總會其他決議

東亞 中外 每日 朝鮮四支局記者는釜山鐵道「호텔」에서去二十日午前十時半부터懇談會를開하고左와如히決議를한後同十一時半에閉會하엿다더라(釜山)

一、釜山에駐在하는朝鮮人記者는結束하야渡日勞働者阻止係의無理한行動과一般渡航者의怨嗟에對하야眞相을徹底히調査할것
二、水上署阻止線에滿岡警部補의記者出入을禁止한理由와暴言에對하야 同署長及警察部長에게質問할것
三、來土曜日에記者團의總會를召集하고此眞相을報告할것

北靑靑聯 執行委員會

去二十日開催

北靑靑年聯合會에서는去二十日에執行委員會를同會館內에開하고左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北靑)

◇決議=本年度豫算編成을通過한事運動方針樹立의件(右翼은絶對排斥하고左翼民族團體와提携할事)靑年教養의件(各細胞團體에巡廻講演及講座를開하고圖書를購入하야巡廻縱覽케할事)靑總紛糾의件(充分한調査를하기外는保留할事)無產兒童敎養의件(講習所를設置하고普校一二三四學年程度로無產兒童을敎養할事)婁洗撤廢에關한件(充分히調査하야內容을改善又는撲滅할事)私書院의撤廢한件(우리北靑에現代에絶對容認치못할私書院이各處에 散在하야舊慣餘弊가莫大함으로撤廢시키도록할事) 農民少年女性衡平運動의件 (農民少年衡平女性運動에對하야積極的後援할事)

明年新設

平[illegible]

黃州『라듸오』大會

二十七日로又復延期

本報黃州支局主催로三月二十四日午後六時半에開催하려든『라듸오』聽取大會는또한諸般事情으로因하야不得已二十七日午後六時半으로延期하엿는데主催者側에서는一般市民에게對하야未安함을마지아니한다더라(黃州)

河東面民大會

面長의失態로

慶南河東郡河東面에서는去廿一日面事務所二層樓上에서面民大會를開催하엿는데그內容은邑內洞附近壙坪里에잇는數千坪의風致林에對하야數百年來로面有財產으로保管하야오든松林을面長의意思도不顧하고同面長인余環暉이가郡守의强勸이라하고水利組合土取場으로許諾하엿슴으로우리面民은어대外지原狀回復及損害賠償을請求치안흐면안되겟다는것과또한邑內洞一郡에所在뿐水道延長三千圓豫算編成에對하야絶對反對하야撤消케하겟다는것이라더라(河東)

共進會副賞

鎭海共進會에서는畜產館特設에對하야 斯業奬勵의意味로東洋畜產興業株式會社、名古屋家禽協會、大阪每日新聞、中央畜產會、道畜產同業組合의各方面에副賞의交付를懇請中이든바名古屋家禽協會에서는벌서副賞의交付가잇섯고其他로부터서도相當이交付가잇슬것임으로斯業奬勵上裨益이만흐리라고(釜山)

漸次로擴大되는 羅南副面長問題

日人任命은朝鮮人意思無視

咸北鏡城郡羅南面에는從來부터面長副面長이모다日人으로任民의半數以上을占하야朝鮮人의意思는無視함이甚함으로數年前부터副面長은朝鮮人으로任命하려는運動이猛烈하야過般副面長木村氏가解任한後其後任은朝鮮人을任命할줄만알고잇든中當局者의態度는突變하야去十七日同面技手로在勤하는日人森尙治를副面長으로任命하엿는데그裏面에는무슨重大한理由가潛在한듯하다더라

緊急南民大會

面長은蒼黃失色

十八日早朝에緊急市民大會를開하고愼重討議한結果代表委員으로洪鍾華 姜鶴秉 全鳳郁外十七名을選定하야吉本面長에게內迫的으로森尙治를副面長에任命한것은君과親近한關係로君의公私情에서나온行動에不過함인즉今番事件의對한全責任을지고辭任하지안흐면容許할수업다하매吉本面長은蒼黃失色하야廿三日外지回答을延期하야달라고哀乞함으로同日外지는참아주기로하엿다더라(羅南)

[illegible]

全北高敞郡[illegible]四歲의壯年으로[illegible]校設立功勞者[illegible]또一年에共同하는바인데甲子年旱災時와此의先大夫人終喪月을紀念하야同郡靑年面과雅山面貧民同族에게多大한物質의救助가잇섯는데雅山面一般人士는氏의德惠를永久不忘키爲하야去十八日同面大東里에洪氏의施惠不忘碑를建立하엿다더라(高敞)

下廂面長非難

水利組問題로

蔚山郡下廂面長은一般住民의不贊成하는蔚山水利組合을期成코저하야愚民을欺瞞하고蔚山水利組合同意書를바더다하야一般社會의非難과憤慨가沸騰한바萬一의境遇에는面民大會外지開催하고對策을講究하겟다는바兵營靑年會에서도眞狀을調査하야輿論을喚起하리라는데內容은蔚山水利工事가下廂面中斷인慶東線路以上으로되면利益이잇스나線路以下에서起工된다면數十萬圓의損害가잇다하야下廂住民은積極的으로不贊成할이라더라(兵營)

各種映畫公開

鎭海共進會協贊會中李王家御藏版映畫를비롯하야畜產協會及鎭海灣要塞司令部의映畫並楓山御幸의映畫와海軍側에서는海軍思想普及의實寫와遞信局으로부터有益한필림其他各地로부터有料無料의開演申請이殺到한다는데鎭海市街의有名한廣場도非常히紛雜할것이라더라

復活!曙光! 安東幼稚園

廿二日에開園式擧行

慶北安東郡西部洞私立安東幼稚園은經營困難에陷하야昨年十二月부터 閉門하고 말엇든바有志의熱望과同情으로去廿二日에다시開園을하게되엿는데保姆로는陶山公普에서多年間敎鞭을잡고잇든金貴桃孃과當地에서어린이敎育에가장覺悟를가진金鳳愛孃이就任되어當日午前十一時에在籍兒童及新入兒童一同이保育室에모혀서金鳳愛先生의引率로「嶺南山뒤에곱고洛東江은압헤흐른다」라는貴桃先生의風琴伴奏와金園歌合唱과園長의訓示가잇섯다더라(安東)

南原山東에 靑年會發起

創立總會는四月四日

全北南原郡山東面地方에는有爲靑年이多數하나各自散在하야修養上一大遺憾이든바該地方靑年金秉植、權興大、高光春等諸氏의發起로去二十日山東公普校卒業式을機會하야發起總會를開하고該會期成에關한諸般意思를披瀝하고期成委員으로崔永福、徐昌淳、高光春三氏를選한後創立總會는來四月四日에節里耆老堂에서開催하기로하엿다더라

安東家畜品評會

慶北安東郡畜產組合에서는各家의家畜을奬勵키爲하야去十九廿兩日間郡內에서家畜品評會를開催한後出品者의等級別로授賞하엿다고(安東)

高靈靑聯 定期大會

十六條項決議

慶北高靈靑年聯盟에서는去二十一日午後三時부터同會館內에서第一回定期大會를開催하고金熊龍氏의開會宣言과代議員의資格審査報告가잇슨後臨時議長崔永敎氏司會下에新選된任員과討議事項은다음과갓다더라(高靈)

◇討議事項
一、運動方面에關한件
一、農民運動에關한件
一、靑年紛糾에關한件
一、女性運動에關한件
一、新幹會後援에關한件
一、衡平運動에關한件
一、靑年運動에關한件
一、少年運動에關한件
一、勞働運動에關한件
一、巡廻講演에關한件

◇任員氏名
▲執行委員長兪演▲庶務部常務申喆休▲組織部常務兪彬穆▲調査部常務朴佳三▲政治部常務[illegible]▲檢查委員李相鳳崔永敎兪斯穆▲執行委員崔潮敎卞京圭崔海龍金日桓

002451

各道評議選擧

延白 道評議員選擧戰은例年보다만흔人士가出馬하야選擧運動이猛烈하얏는데去二十二日延白郡廳에서開票한結果孔炳憲氏가九十一票의最多點으로當選되엿고(延安)

益山 郡에서는今回道評議員選擧運動은去二十四日同郡會議室에서同郡守가開票한結果一般의豫想을바더오든蘇鍾文君이當選되엇고(益山)

迎日 郡道評議員選擧戰은去二十二日에迎日郡十八面이一時에投票를告하고二十三日迎日郡廳會議室內에서開票한結果最高點으로朴允余氏가當選되엇고(浦項)

平原 의道評議員選擧는去二十一日平原郡廳에서開票한結果七十一點으로革基喆氏가當選되엇고(平原)

金化 郡에서는去二十三日同郡廳에서道評議員選擧를開票한바最高得點者인金揆氏가當選되엇고(金化)

金泉 郡의道評議員選擧의結果는百八票로洪在淑가當選되엇고(金泉)

善山 郡에서는去二十三日午後一時道評議員選擧를行하엿는데李憲儀氏가三四點의最高로當選되엿고(善山)

星州 의道評議員選擧는去二十三日星州郡廳에서新聞記者를비롯하야各面長及有志의立會下에開票한結果五十二點으로邑內裵相淵氏가當選되엇고(星州)

松禾 에서는道評議員이滿期됨을따라去二十三日新聞記者와警官의立會下에當郡廳에서開票한바豊海面任憲豐氏가四十一點으로當選되엇고(松禾)

安岳 郡의道評議員選擧는去二十三日當郡廳會議室에서開票한結果元孝燮氏가五十票로當選되엇고(安岳)

鐵原 郡의江原道評議員選擧戰은數月前부터各樣의方式으로猛烈히運動하야오든바去十九日各面事務所에서有權者의投票가잇슨後二十日鐵原郡廳에서開票한結果最高得點으로朴普陽氏가當選되엇고(鐵原)

孟山 郡道評議員選擧戰은近來드물게猛烈하야各候補者數名의壯觀으로一般의注目이자못非常하든바結局去廿日孟山郡廳에서開票한바趙元祚氏가四十一票로當選되엇고(孟山)

忠州 忠北道評議員選擧의投票는去廿三日忠州郡廳에서開票한結果最高點으로鄭雲益氏가當選되엇고(忠州)

長城 郡에서는去廿三日郡廳에서道評議員開票를行하엿는데金相翊氏가五十三點으로當選되엇고(長城)

順天 에서는去廿一日에各面에서道評議員을投票하고廿三日本郡廳에서開票한結果金谷里金淳珏氏가最多點을得하엿더라(順天)

各學校卒業式

良策正則學校 에서는去十九日午前十一時에同校講堂에서第五回卒業式을擧行하엿는데卒業生이八、이라고(批峴)

信成學校 지난二十[illegible]午前十時에當地禮拜堂에서[illegible]二回卒業式을擧行하엿는데[illegible]

宜川明信幼稚園 에서는去二十二日午前十時半에當地禮拜堂內에서園長吳觀愛女史의司會下에第五回保育式을擧行하엿다는데保育生四十九名中二十一名은病으로因하야參席치못한것이라하며白時讚氏祝辭와來賓祝辭가잇슨後閉會하엿다는데特히元日亨氏가保育生費用全部를支拂하엿슴으로同園關係者는勿論이요一般은稱頌이藉藉하다고(宜川)

大邱喜道 普通學校에서는去廿一日午前十時同校講堂에서第十九回卒業式을盛大히擧行하엿는데卒業生은男子部五十九名女子部六名이라고(大邱)

龍川主日學校 第一回修了式은去廿日에開催하고部長李東淸氏司會下에生徒五十餘名이順序를밟아二百餘名參觀者의게만흔興味를주고盛況裡에同十時散會하엿다고(楊市)

群山幼兒院 에서는去二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同院內에서第一回保育證授與式을院長金瓊得氏司會下에擧行하얏는데保育證授與한幼兒數는二十名이며近日幼兒들의遊戲와告別辭等은一般으로하야금多大한感激을주엇다고(群山)

宜川公普校 에서는第十四回卒業式을去廿三日午前十時에同校講堂에서校長杉崎潤五郞氏司會로擧行하엿는데卒業生은普通科一六四人高等科二四人機業補習科一五人中優等生은普通科安相民 金利奎 高等科男 元國 女張恩臨 機業本科呂尙 硏修科朴元起六個年皆勤者朴炳禾라고(宜川)

求禮公普校 에서는去廿二日에第十七回卒業證書授與式을擧行하엿는데卒業生數는男六十一名女五名計六十六名인바上級學校志願者가十七名家事에從事할者가四十九名이라고(求禮)

群山公普校 에서는去廿二日午前十時부터第十八回卒業式을擧行하엿는데卒業生은八十四名中男子가五十五名이며女子가二十九名이요[illegible]優等生은[illegible]이라더라(群山)

江陵首善講習所 에서는去十七日午前十時에本所講堂에서普通部第四回中等部第一回의卒業式이도는폐학으로慶事를告하게되엇는데所長崔命台氏의懇曲한式辭를비롯하야普通部十一人中等部七人의卒業證授與를마치고來賓祝辭와設立者側代表의當局者들의千辛萬苦하면서熱心敎授한것과雪寒風雨를不計하고배우기에애쓴結果螢雪의功을祝賀하는同時에今般農校設立으로因하야不得已本講習所를廢校함은設立者우리로서는遺憾千萬이란感想談衆告別辭로當日부터永永히閉門하게되엇더라(江陵)

博川公普校 에서豫定과如히去廿一日에本校講堂에서第六回卒業式을擧行하엿다고

私立博川幼稚園 에서는豫定과如히去十九日에本園講堂內에서第一回保育式을擧行하엿다고(博川)

鐵原公普校 에서는去廿二日午前十時에同校大講堂內에서第十七回卒業式을盛大히擧行하고午後二時에는卒業生의茶果會가잇슨後同三時半頃에無事閉會하엿다는데今年度卒業生은八十餘名中上級學校에入學하는數名을除한外大槪는學資困難으로卒業을中止한다고(鐵原)

礪山無產夜學會 에서는[illegible]午後八時부터[illegible]第一期修業式을擧行[illegible]

[illegible]來賓으로金[illegible]한祝辭와學生들의感想等으로맛外지無事裡에同十一時頃에礪山無產山夜學會費三[illegible]으로閉會하엿다더라(礪山)

漆谷郡新洞公普校 에서는去十九日午前九時부터同校教室內에서第一回卒業式을擧行하엿다고(倭館)

漆谷倭館公普校 에서는去廿三日午前十時부터第十一回卒業式을同校講堂에서擧行하엿는데優等生은朴鳳羽李載鐵外五名이고卒業生은四十三名이라고(倭館)

倭館同昌學院 에서는第四回修業式을本月廿二日午前十一時부터同校室에서擧行하엿는데[illegible](倭館)

水原各學校 卒業式은十八日부터各學校講堂에서盛大히擧行하얏는데卒業生과成績은如左하다고(水原)

水原高農 十八日午前十時卒業生農學科三十八人林科十八人林科二十二人內朝鮮人農科十八人林科六人優等賞具在書君
三一學校 十九日午前十時卒業生十五人內優等三人
三一女普 二十一日午後二時卒業生十五人優等生[illegible]人
水原公普 二十三日午前十時卒業生男一〇三人女二八人優等男十六人女四人

金氏의敎育熱

咸南三水郡別東面長項里金殷鎬氏는年富力强한有志로서부엇보담도文盲退治가急先務란覺悟下에當地私立普興學校創立以來로만흔貢獻이잇는데今番公立學校로昇格됨도金氏의熱誠이라고一般은稱頌이藉藉하다고(三水)

地方集會

●鐵原[illegible]期成會=[illegible]面에서는去二十二日[illegible]學校期成會[illegible]總會[illegible]氏司會로開會하고[illegible]하엿는데[illegible]面內에서八千圓[illegible]寄附를어도면道에서補助[illegible]하엿슴으로[illegible]進行方針을討議하엿고[illegible]가有力하다고(鐵原)

●錦江靑年會[illegible]=全[illegible]錦江靑年會에서는[illegible]來만흔事業을하여오는바今般에도本會의[illegible]인農民夜學을一層發展하기爲하야木浦少年[illegible]土隊外지招待하야去廿日午後七時부터本夜學院內에新春[illegible]大會를開催하고[illegible]會하엿다는데有志諸氏로부터만흔同情金外지잇섯다고(木浦)

●[illegible]靑聯新友會[illegible]=慶北尙州郡靑年聯盟及新友會에서는去廿七日에定期大[illegible]開催하고過去一年間의事業報告及決算報告와運動上狀況에對한것과今後進行上에如何한方針을取할것을討究할터임으로聯盟代議와新友會의一般會員은多數參席하기를바란다고(尙州)

●蔚山兵營委員會=蔚山兵營靑年會執行委員會는去廿一日午後八時該會館에서開하고多數會員과地方有志數十名의傍聽과嚴重한警察의警戒裡에서左記와如히決議하엿다(兵營)
◇決議 定期總會日程의件 城址植樹에關한件 會館區內植木의件 勞働夜學에關한件 會館修理에關한件 「고래」川講改修의件

●疑惑事件의件

●群山靑年執行委員會 群山靑年會에서革新後第一回執行委員會를沈學允宅에서開하고方漢廻君司會下에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고(群山)
◇決議=敎養에關한件女性及少年運動促成에關한件會館修築에關한件豫算案編成에關한件

●間島科學硏究會員=間島龍井村에잇는科學硏究會에서는去二日當地同會館內에서執行委員會를열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고(間島)
一、定期大會를三月十五日에召集할것
二、圖書를公開할것

●朴女史의美擧 北靑郡德城面滿項里韓泰源氏의妻朴氏(豐)는貧寒家庭에서紡績을勤勉히하야貯蓄한金二十圓을同面德城普通學校에維持費로寄附하엿는데該校當局者는勿論이어니와地方人士들은稱頌不已한다고(北靑)

●蓮峰靑年執委會=慶北尙州郡外西面蓮峰里蓮峰靑年會에서는去二十一日下午三時頃에該會館內에서第一回執行委員會를開하고左記와如히常務執行委員을選擧한後無事히閉會하엿다고(北靑)
▲庶務部金周永▲經理部趙漢晩安基烈▲調査部昔九哲▲運動部崔鳳鎭

社告

一、支局名稱 大田支局
一、支局位置 大田郡柳川面柳川里
一、支局員職氏名 支局長 吳淵察
本社大田支局을左와如히設置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社 白

◇訂誤=昨紙本面五段國外中에南共進의「中國」字는「京」字의誤植이기訂誤함

一、分局名稱 萬城分局
一、分局位置 京義線萬城驛前
一、分局員職氏名 分局長 安炳珠 記者 金華涉 記者 玄炳柱 顧問 李炳德
本支局에서左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安州支局 白

一、分局名稱 進永分局
一、分局位置 金海郡下界面進永里
一、分局員職氏名 分局長 金遠鎭 記者 李龍守 記者 安晟鎬
朝鮮日報金海支局 白

本支局記者金麗泰君은數年間局務에從事하다가事情으로因하야辭任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楊市支局 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駐在記者를採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襄陽駐在記者 崔容大
朝鮮日報江陵支局 白

新春音樂舞蹈大會
主催 仁川高麗[illegible]
後援 仁川各新[illegible]
◇日時 三月廿六日(土)下午八時
◇場所 仁川公會堂에서
◇會費 紅三十錢 靑二十錢

平南成川에又復 拳銃青年突現

범인의종적은묘연무묘연 혐의자로수삼명만인치해 警察不眠不休活動

지난이십삼일 오후여덜시경에 평안남도 성천군구룡면 가효리(成川郡九龍面嘉孝里) 리희경(李熙景)의 집에 복면(覆面)한 권총청년한명이 침입하야 권총으로주인을 협박하고 만흔금전을 강청하엿스나 마츰 주인의집에 현금잇는것이 이십륙원밧게업슴으로 이것을가지고 유유히종적을 감추어버렷는데 이급보를 접한소관성천경찰서에서는 전서원이 총출동하야 불면불휴로 범인을수사하얏스나 아직것 범인은잡지못하고 혐의자수명을 인치하엿슬뿐이오계속엄밀히수사하는 중이더라(성천지국뎐보)

板橋駐在所 長銃紛失事件 범인오리무중

지난십사일새벽세시경에 렵원경찰서판교경찰관주재소(板橋警察官駐在所)에엇던사람이 들어가서 교묘하게장총(長銃)두자루를집어간사건이돌발되자 렵원경찰서에서는 필사뎍활동으로 범인수색에 로력하얏섯스나 범인은 오리무중에잠겨단서조차 엇지못하던중 지난십구일에 엇던나무군이 몽주재소주인 중앙수리조합수로(水路)를지나다가 장총한자루가떨어저잇슴을발견하고 주재소에갓다주엇스나 아즉도 범인의자최가 묘연하다는바 렵원경찰서에서는 판교시에 거주하는서병훈(徐炳勳)외두사람을혐의자로인치하야엄중취됴중이라더라(렵원)

永興某團幹部 二名秘密入京 영흥사건으로입경해 鍾路署嚴重內査

긔보=영흥군(永興郡)에서일어난 모단테간부(某團體幹部)사건에관하야 영흥모단테간부 두명은 비밀리에입경하야 엇더한방면에 출입하는형적이 잇다하야 종로서(鍾路署)에서는 시렬이 엄탐이 내사하는중이라더라

日本勞働黨 第四回民衆大會 당국은금지하나주최자는 긔어히실행하랴고결심해

일본의로동농민당(勞働農民黨)은이십칠일 오전열시 동경지공원(芝公園)에서제사회의회해산청원민중대회(第四回議會解散請願民衆大會)를개최하고최후의긔세를올리기로작정하얏는데 이에대하야경시령특고과(警視廳特高課)는그진정한 목뎍은다른곳에 잇다고하야 금지함과 동시에 수만장의『비라』를압수하는일편 주최자는 어대까지든지실행할터이라고 함으로 당일에대소란이잇슬터이라고관측한다더라(동경뎐보)

大東學院寄附

시내대동학원(大東學院)의유지곤난으로인하야 시내각권번(券

◇…소리업시나리는봄비…◇ ──(작일아츰종로에서)──

時代相에나타난 自動車의三角戰

원탁시, 메타부, 임대의경쟁 ◇……當分원탁시天下

경성에도자동차가교통긔관의하나로서 행세할시대가왓다 황금뎡(黃金町)종로광화문통(鍾路光化門通)의큰길은 물론이오신뎡(新町)방면에도자동차가번갑히질주하나 그러나 이에불만한것은자동차동업자의 삼각전(三角戰)이다즉일원균일의 원(圓)『탁시』와『메타부』(付)、임대(賃貸)의세가지가 삼각(三角)이되어려재의 쟁탈을하는중인데 이것을 수자로나타난 현상으로보면『메타부(付)』는경성자동차가 전매(專賣)로두『마일』과『단가(單價)』로 이의오분시일의 거리가 더할때마다 십전식더바드며대료(待料)는 삼분간마다 십전식밧는데 종래의 임대자동차의 한시간오원내지 륙원이라는것이 출현되엇섯든바 시대의요구는이에 만족할수업시 일반의수요는 조금더간편한차를 요구함으로 작년칠월에 나타난조일자동차(朝日自働車)의일원탁시와계속하야 계림(鷄林)이 역시이를딸아서 천긔두자동차부는요사이 제휴하야『입너』와『메타부』를밀쳐하야 원탁시의 시대로하랴하는데 즉각한채에대한 일일의수입을보면『입너』가팔원내지십원『메타부』가십원오십전『탁시』가십일원오십전으로 석국아직은원탁시의시대가되엇더라

實母證人으로 兄弟訴訟 유산문데로

대구부 상서뎡(大邱府上西町) 박윤긔(朴允基)는자긔모친인녕분립(分立)을후견인(後見人)으로하고 친중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하야 자긔친형 박용술(朴鎔述)을 상대로 사만원가격의 토디소유권이전등긔청구소송을 수일전에 대구디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데긔하얏다는바 이제그원고의 하는말에의하면 지난대정십사년 륙월이십오일피고의 부친박만수가 림종할때 그의차남인 원고에게도 유산을 분배하라고 유언하얏스나피고는 이것을 리행하지아니할뿐아니라재산권부를자긔혼자상속하고 원고를도라보지도 아니함으로 유언장을 증거로하야이소송을 케긔하게 되엇다더라

學生萬歲事件公判 內容一切揭載禁止

二兒를慘殺後 自殺하랴다未遂 면도로두아들을죽인후 혀를물어자살하랴가미수

이십사일오후열한시경일본군마현다야군 팔반촌 산명석정포삼(群馬縣多野郡八幡村 山名石井浦三)의안해『노부』(?)는 두아들을면도(面刀)로참살한후자긔의혀(舌)를 깨물어 자살하랴고하얏스나미처죽지못하고 고민중에 발견되엇는바 원인은 권긔『노부』가작년부터신장병에걸리어비관하얏던까닭이라더라

殿下御渡歐와 船舶準備紛忙

왕전하(王殿下)에서는 결국오월이십삼일 횡빈해람우선 상근환(橫濱解纜郵船 箱根丸)으로동경하압시던 구주(歐洲)로행차하시게되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리왕직(李王職)으로부터 내명을바든우선(郵船)에서는 대곡전무(大谷專務)가궁내성(宮內省)과 밋리왕직에 번갈너 출두하야여러가지 준비에대하야 협의하는중인바전긔상근환(箱根丸)은귀빈용특별실(貴賓用特別室)이잇슴으로 이를전하의사용하실방으로 정할 예정인데이 특별실은거간(居間) 침실(寢室)욕장(浴場)의삼실로 되어 선미(善美)를극한선실(船室)이오이번전하에서 쓰신다는 내명을접하면서 최선의 준비를하기위하야『카텐』과『카벳트』와의등여러가지를 새로히 장식하야 보생본위로하고비전하(妃殿下)의게실방으로는 일등실의 케빈세곳한방을 고치어그곳을 사용하시게되엇다 해외만리 이역에려행하심으로 선중에 운동오락(運動娛樂)의긔구등은전하에서조아하시는것으로 준비하엿고 또일용사용하실 여러가지 물품은전하에서 손수휴대하신다는바 이배는륙월이십칠일『나포리』에칠일경 어십칠일도착되고 팔월사일『말세이유』에입항하게된다더라(동경뎐보)

面長排斥과 面費不納同盟 공보교장의숙사건축과 면민무시하고처리하얏다

벽동군여간면장(碧潼郡麗間面長)최준구(崔俊九)씨는 동면공립보통학교장숙사(宿舍)와면소(面所)건축에 대하야 작년봄에면협의회를열고 자문한결과 동회에서는 면민의사정이 허락지못할바이라고 반대함을 불구하고 면장은학교평의원 김태준(金泰俊)과 상의하고 건축에착수하야 준공된 오늘에야면민대회를열고 건축비문제에 대하야 비로소말함으로 일반면민은 작년구장회에서도 반대한것을 빈약한 면민의경제상태도 살피지안코 다대한금액을 지불케함은 커일면민을 무시하는것이오 경제의파멸을 초래하는것이라 우리로서는 수입보다 지출이만흔면민으로써 다대한 건축비를내일수도업고 이건물이 업슬지라도 간면의 교육긔관이 업서질것은 아닌즉 내일수업다하야 그대로 헤어졋는데 그후에 면장은건축비사천구백여원이란 금액을 면민의 디세등급(地稅等級)에 불부하야 고지서(告知書)를 발부하며 디방유력자들에게는 문구로 몰렷는데 일반면민은 더욱분개히생각하고 고지서를 몰려보내며 면비를 불납하는동시에면장배척운동까지하리라더라(김주)

駐日露大使 二十五日下關着

긔보=경성을통과하야 주일로서아대사(駐日露西亞大使)「도부가례우스키」씨일행은 이십오일아츰 하관(下關)에도 착하야산양(山陽)호텔에서조반을마치고동여덜시 사십분발 렬차로출발하엿다더라(하관)

同榮社主旨와 將來事業進展

어리석은 무복(巫卜)과 미신(迷信)으로부터 과학(科學)덕방면으로인도하야데이세의보복을근절시키겟다하야 그동을인도하야가지고주식회사와 학교를조직또는 설립시키겟다는 시내삼각뎡(三角町)에 사무소를두고 윤필구(尹弼求)씨를 사장으로한동영사(同榮社)에서는 벌서 창립한지월여가 되는바사

[illegible]

去留者가垂淚脈脈 黃州驛頭流離群 역시간도혼춘방면으로

나날이 닥처오는 생활난에쫄들리어 정만흔고국을등지고 멀리언어풍토가다른간도(間島)방면으로 생로를차저 간다함은누누보도한바와 갓거니와 황해도황주읍(黃海道黃州邑)에서도지난이십사일 오후네시 북행렬차로 황주읍덕월리(黃州邑德月里)에 살는정원익(鄭元益)의가족일곱명을 비롯하야 십여인이 간도혼춘(間島琿春)방면으로떠낫는데 역두(驛頭)에서전송하는사람과 떠나는이들의 우름소리는 듯는이의 심회를 강개케하엿다 더라

研鑽의結果 地方卒業紹介(6) 元山商業學校

원산상업학교 뎨삼회 졸업식은 지난이십사일오전열시누 동교에서거행한바 삼십사명의 졸업생중최우등생은문정걸(文正傑) 조효옹군이더라

문정걸군

조효옹군

改良工事無期延期 理事는辭職까지 김해수리조합의분규

경남김해수리조합(慶南金海水利組合)에서는 그조합긔성공사중 결함잇는곳이만허 조합임원(組合任員)측에서는 개량공사(改良工事)를 단연 실시하자하고 디주(地主)측에서는 금번개량공사비가 사십구만 일천원이나들어 조합비의 과중과 락동강치수공사(洛東江治水工事)가불원간 실시될것임으로 그공사가실시될때까지 연긔하자 하야 쌍방의 주장이강경해오던중 지난십일날 동조합사무소에서 평의회(評議會)를 개최하고 협의를거듭해오던중 결국 그개량공사는무긔연긔(無期延期)로결정되엇다는데 동조합리사 소천상태랑(同組合理事小川常太郞)씨는 이로말미암아사직청원(辭職請願)까지 뎨출하얏다 더라 (김해)

大會를開催後 問題解決方針

평양로동운동단테사이에분규가격렬하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평양로동련맹에서는이십칠일각세포단테(細胞團體)대회를개최하고이문데를해결하리라더라(평양)

同情音樂會

[illegible]에서 동유지금모집에대한동정(同情)연주회(演奏會)를시내래청각(來青閣)에서개최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당야의입장료(入場料)수입과원반인사의 동정금(同情金)은 알에와갓더라

入場料 一、四〇六、五〇
同情金 一、三九八、八〇
合計 二、八〇五、三〇

東京에强盜 五名殺傷 두명은즉사해 犯人未逮捕

일본동경부하[illegible]의집에 이십사일오전[illegible]에복면강도가들어가 [illegible]하자는 그장남오평(長男五平)(二五)과 파그안해(二一)와맛손자량평(良平)[illegible]과 [illegible] 우(…)의 다섯사람을찍어 전긔『미쓰』와 우(…)는 즉사케하고 다른 세명에게도 중상을당케한후 의복몃가지를 강탈하야 도망한범인이 잇는바방금엄탐중이라더라(동경뎐보)

横領入監面長 突然獄中變死

당국은노일혈이라주장하나 裡面에는疑雲重疊

평남중화군양정면(平南中和郡楊井面)의 면장인윤포진(尹布鎭)은 그동안공금(公金)을횡령하야 소비한사실이 발각되어 지난륙월에 평양디방법원검사국에 검거된후 최(崔)검사의 주심으로 엄중한 취조를마치고 오든중 지난이십사일 오전중에 전긔피고들중 윤포진은 돌연히평양감옥에서 목을매어 죽엇다는바 평양감옥당국자들은그가자살한것이아니요 노일혈(腦溢血)로 사망한것이라고 극구변명한다더라(평양지국뎐화)

老會開催延期

긔보=평양장대현 교회분규 사건으로인하야 이십오일에 평양로회(老會)를개최할예뎡이엇스나사정에의하야 오는삼십일일로 연긔하얏다하며 장소는 장대현예수교회당이라고(평양)

山中에怪屍體 松枝언고火葬

진위군병남면 비전리(振威郡丙南面碑前里)뒤산에서 수일전에 산양군이괴이한사테를발견하고 소관경찰서에급고하야당디경찰서에서는공의권태동(權泰東)씨와가티현장에달려가서시테를검시하야본다는바그자세한바를보도하건대금년사오세에불과한어린아이를죽여서그곳산으로갓다가 흙이흑칠처되는 소나무 가지에 언고 석유를바르고 불에지노와 시테는 형용을알수업슬만치 타버리고 소나무가지도 만이 탓다는바 그아이의일흠은떨어졋스며잇는의복조각을 보건대 빈한한집아이갓다더라(평택)

教育會席上風波 간부의단독처리에부개 幹部不信任論擡頭 ◇結局은無事終了

김해교육회(金海教育會)는김해공립농업학교(金海公立農業學校)설립문데로말미암아 적지아니한 숭강을바다 일시세상의소동을일으킨일은 아즉도 그긔억이새롭거니와 지난이십이일 오후한시 합성학교에서 동교육회뎨칠회정긔총회(同教育會第七回定期總會)를개최하고 회장허섭(會長許燮)씨가개회선언을한후 회의사항에들어가자 회원중으로 간부불신임론(幹部不信任論)이일어나 취지는자못요란하얏섯는데 이는다름아니라 간부가독단뎍으로 합성학교 련와제건물(合成學校煉瓦製建物)을공립농업학교(公立農業學校)에데공하고 그대신으로 목조건물(木造建物)을밧기로계약한것이라하야 대부분 일반회원을 무시한것이라 하야 출석원의 일치로써 다음과가튼결의를행하얏다더라(김해)

◇決議事項

一、敎育會와農業學校期成會間의旣成契約에對하야는不得已此를承認實施하게함

一、右契約成立에基因하야去二十一日敎育會總任員會에서農立學校期成會와契約成立한合成學校舍에對하야現在金海公立普通學校舍로써交換하기로한것이此를承認實行케하되契約相對者는本會의信賴者로採用할事

一、敎育會經營인合成學校는現在總財産으로써財團法人私立合成學校를設立케하되自今三個月內로該申請을當局에提出하도록促進할事

一、今回任員改選은全部中止仍任하기로함

一、歲入出豫算은經常部總額八千三百五十二圓臨時部總額一千一百八十八圓으로通過함

一、合成學校現在設立者中三人은辭免勸告하게할事

河豚中毒即死

부산부영선뎡(釜山府瀛仙町)이백오십륙번디배일남(裵一男)의아우동춘(冬春)(一〇)과순실(春實)(八)두명은 지난 십삼일오후네시경에 동뎡조선도기회사(朝鮮陶器會社)부근바다가에서복어알을 주어먹엇든바 중독이되어고민하다가 그만 참혹하게도죽엇다더라(목지도)

安興池中에 疑問의少年屍 원인은불명

지난이일에횡성군(橫城郡)정곡면 안흥시장(安興市場)부근 못(池)에서 나이 십이삼세된 조선인남자의 시테를 발견하고 소관경찰서에 계출하야 동서에서는 검시를한결과 타살(他殺)임을발고 범인수색에 로력중이든바 지난이십사일에 전긔범인이 동군동면시구리(…)김미순(金美順)(二三)임을 판명하고 목하 엄중취됴중이라는데 아즉그원인은알수업다 더라

交通取締한다고 『쌩』行商을毆打重傷 유도법으로들어처서혼도 全州日巡查의非行

전북전주서뎡(全州西町)에사는량순관(梁順寬)의아들명환(明煥)(一三)은 쌩을구어서매일역전에서나 또는시내로 다니면서파는것이 직업임으로 지난이십삼일에도 오후열시경까지 대화뎡길거리에서 쌩을 구어서팔고잇던중 마침전주경찰서 일지(日枝)라는순사부장이그곳을지내다가 길거리에안저서 파는것은교통방해라는뜻의 주의를시키고지나갓는데 전긔량명환은미처 거두어가지고 갈준비도 되기전에다시 일지순사가몰아옴으로 자긔가 부주의하엿다는 생각과 또는 경관이 무서워서달아낫더니 일지순사는 또자가가서 붓들어가지고 쌤을 몃번때린후이아이를 땅바닥에 들어처서 혼도케하엿는데 현장에서 혼도되며 똥을싸고인사불성이된것을 가해순사는 그아이를업어가지고 집으로 보내려함으로 구경하든사람들이 병원으로 가게하야 즉시소남의원(少南醫院)으로간즉 의사의부재를 핑게하고 밀어버림으로 다시대화뎡평안의원(平安醫院)에다리고가서 진찰한결과 생명에는관[illegible] 현장에서 구경하든군중은 일지순사의비난이자자한 동시에 전긔일지순사는 전북에서도 유명한유도선수인바 그당시에도 유도법으로 명환을구타하엿다더라(전주)

안해를誘引햇다고 食刀로八名殺傷 二名死亡六名重傷 ◇범인은결국자살코자해

전남화순군한천면(全南和順郡寒泉面)에거주하는장재룡(張在龍)(三五)은 그안해남성녀(南姓女)(二八)가이십이일아츰에 무단히 집을나갓는바 갓슬듯한곳을 모다수사하야 보앗스되 도모지간곳을 알수업섯는데 리웃사람이 청녀가다른남자와 관계를 맷는다고 자긔에게 일러주던바 박성녀(朴姓女)와김성녀(金姓女) 리성녀(李姓女)가 유인한것이라고짐작하고 이녀자들을 모다죽여버리라고 생각한후 동일오후한시경에 식칼을가지고 전긔리성녀의집으로가서 마츰그방에모혀안저서 잡담을하던 리성녀와 밋박성녀외네명을 찍어서 선혈이흘으는것을 보고더욱흥분하야 그대로뛰어나온후 다치는대로사람을 찍어서드대어 여덜명을찍어 넘힌후외남면(外南面)의엇더한 음식뎜에이르러 그곳에잇던날카로운식칼을또다시가지고 재차집밧그로 나아가 소동을 이르키엇는바 이것을 들은 외남경관주재소 도변순사부장(外南面駐在所渡邊巡査部長)은 굴강부장(堀江部長)과 함께 압뒤로 포위하얏슴으로 전긔 장재룡은 별안간밧가운데로뛰어들어가서 자긔가 가젓든 식칼로자긔의음경(陰莖)을끈코 또다시가슴을찔러서자살하랴고하얏슴으로 전긔순사부장은즉시공의(公醫)를불러서응급치료를한후위선그 아우에게인도하야 이십삼일오후열시에도립광주의원(道立光州醫院)에입원케하야 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하며 또피해자중두명은 그날사망하얏고 다른다섯명도 중태라는바 방금치료중이라더라

日本가다沮止當코 進退維谷인流離群 업는가산을방매하야일본으로가다가 려비는다쓰고오도가도못하는불상한가족 金泉驛에서風餐露宿

지난이십삼일오후열한시경에경부선김천역(金泉驛)정거장구내에는 남부녀대한 초초한행장을 차린 남녀칠팔인이 수색이가득하야 무엇을구하는듯한 괴상으로 봄바람도 이기지못하야 떨고 잇는것은 참아눈으로 볼수업섯다는데 이제그자세한소개하건데 그들은무주군북이면 화성리(茂朱郡北二面花城里)에거주하는리용술(李容述)이란사람의 일가족으로 일본으로 벌이를차저가고저 거월에 얼마안되는 가산을방매하고 일가족이 일시에고향을 하직하고 부산까지갓든바 수상경찰서에서 일본도항을거절함으로 몃칠간부산에 두류하야 만치안튼려비는전부가 소비되다십히 하야할수업시 촌촌히 걸어서고향을 차저가는길에 마츰내김천을당도하야 날은저물고 갈곳은 업서 할수업시 뎡거장대합실에서 그와가티하로밤을 새이는것이라는데 압흐로 엇지될는지 이제는 본고향으로 가지도못하고 진퇴유곡의 가엽슨신세가되엇다더라

妓生取締

지난이십사일 오전열시경에 평양경찰서사법실에는 나히 십칠팔세가량되는기생두명이 주임압헤서서 나오지 안는 우슴을 우서가면서잘못되엇스니 용서하야달라고 애걸을하얏다는데 그는 평양기생방화선(方花仙)김금화(金錦花)두명으로지난 이십이일 새벽두시경까지 자동차를 타고 시내로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자는사람들의 안면을방해하엿다는 사실로 고발되어 설유를당하엿다더라(평양)

흥행하얏든바 조선의 인류명창을망라한이만큼일반의인긔를만히끌어대성황을 일우 엇슴으로 금번에는다소의 수입을 어덧다더라(김해)

金海名唱大會

김해청년회(金海青年會)에서는 경영하는 사업이 만흠으로이사업비를엇기에각방면으로고심하야오다가 지난십구일부터는 경성리동백(李東伯)일행을초빙하야 련삼일간당디읍내에서가무하는중

휘파람

▲중국에서 공산주의(共産主義)선전을 무선전신(無線電信)으로 한다더니▲경북경찰부(慶北警察部)에서는관내각서를통하야 무선경찰망(無線警察網)을 벌이기로 하엿다든가▲하여간 잘되엇서 죄야잇든업든간에 사람을 따리고포승으로 묵어가지고 왓다갓다하는 것이 보기만 하야도 소름이 끼치는데 경찰서까지공중으로 올려갓스면 그꼴을좀덜보고십겟구먼

映畫小說 白衣人 (四十八) 李慶孫 作

귀영이는 상뎐주인에게 어데 좀들여노아 놋케 가리다는신화를걸어노코 형을 인력거우에실어노앗다 형은인력거를 타더니 예술부리라는지 몸을 영으로빼어드리라고도하며 어린애 굴듯하엿다

『가만잇서!』사무실안에잇는 형의친구는 맨발로 뛰어나온다

『사람이 이거엇재 이래』

자긔역시 비틀ㄱ이면서 형의입에 인단을수업시너허준다

『잘보시게』

그래서 귀영이는 인력거의뒤를 딸아큰길로나섯다 어린가슴은상여뒤나딸으는듯이 무서움과 슯흠이잇섯다 자긔는일본옷을 입고서 제정신을 일흔 형의 뒤를 쫏는광경이스스로생각하여도가련한 일이엇다

봄밤의 거리는 미지근하나마 모다가 한색채ㄴ 그녹이흐르고 잇는데 자긔의형케만 춤츰일흔 병신과가탓다 려숙압헤 다다르니 취한사람은 무겁기도하엿다 인력거군과 합력을하느라고 떠들석하엿더니 주인마누라님은 부순큰눈이나난듯이뛰어나왓다

『식비는 날세업서도 매일장취시로군……』

형의몸을 간신이 방안에들여노라니 주인마누라는 그가티중얼대며 제방으로 들어간다

귀영이는 두시세시가 넘어서도록 잠을일우어 볼수가업섯다 업치락 케치락하는 형의몸은불덩이가튼빗치 사라지더니 인케는 누에와가티 얼굴빗치 낫는다 그래도 각금누런물을흘릴때에 커옥이 안심도되엇다 그것은 조금도틀림업는『마사무네』그대로가상마에켠장새듯이 흘러나온다 벌서 세권에나 낡은삽지를뜨더 형의 헐미테바치엇다 그러나방안의 닭의장바닥과 가래진것은 벌서 예권이다 원! 하고 아직도 살아잇다는듯이 목이엄들훌쉬이면 귀영이는 버럭가러 뎜비어서 이마를집허보며 조희를 바치엇다 눈물이 그러할때마다 한번식 복소슴하엿다

형의 홍홍소리가 조금시원스러워지는것을 보고 귀영이는마음을 노앗더니 잠이들어버리엇다

그래서 서노 뺨을박고쓸어진두몸 형뎨우에 새벽이지내어 아츰이오고 그것이더자라서 볼돋해人빌도이케는 나히찬아가씨의 얼굴빗가티 환―하게피어버렷다

먼저쌔 귀호는아우의 고단함을 떠들어주나하엿는데 부엌을 향하야 먹을물을벌리는소리가 잠든아우의귀를 지나처 흐른모양이다

『언―니……』

귀영이는 손을내저어호ㅅ 잠꼬대를하고잇다 귀호의눈자위는 갑작이뜨거웟다

『응?』

귀호이는 저절노 일어난다

『왜 더 자렴……』

『응?』

눈을비비며 벌떡일어난다 귀영이는 멀쩡정신에도 형이 우보옷입은것을 볼가하야 일이낫다 자긔는 어제人방에 … 에이미 감추어는것을 너졋든것이다

일순간 형뎨가 마조보앗다만 서로 시선을 사양하고서 혓나봄은 아우에게대하야 죄가잇고아우는 형에게대한미안이 숨어잇는셈이다

『언제왓니어제人방에와잇니?』

『……네……』

주인 마누라님이 물그릇을들고 와서 창문을 연다

『온 어제밤에 그게누구세요 아우님하고 인력거군하고 씽씽매고……』

귀영이는 주인마누라의 얼굴이 『후도몰』이다 하엿스면 조흘것가티 공연히 미웟다

형은 다시 빙긋우섯다 그리고

『네……』하며 버릴뿐이엇다 주인마누라는 물러갓다

『참동무집이 잇다너 어데냐?』

『……』 하고 놋은물그릇을노코 그가티물엇다 귀영이는 일왕완한번 거짓말하여논길이면서도얼는 대답하기가어려우니 이상하엿다 눈압헤서는꼬기쒀는칼을쥐고으른 딱다 거리는 주인의 환상이얼른거리엇다 그래서 귀영이는 울엇다 그러나 머리를숙이어서 자긔의 우는양을 아니보히엇다

『학교서……』개성 학교서형데처럼 지내든 학생이 잇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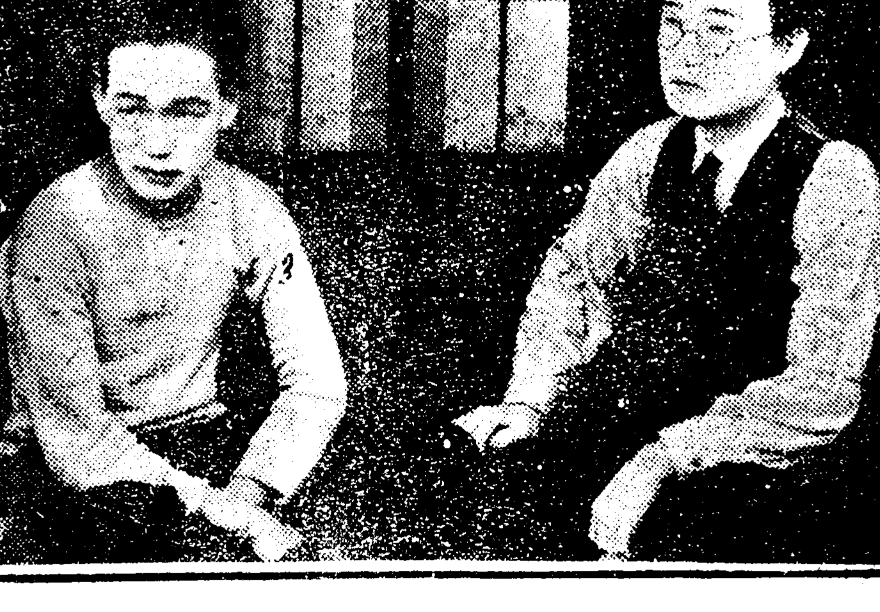
형은 아모말도 아니하엿다 입맛을다시더니 또다시 물엇다

『누나 소식 들엇니?』

귀영이는 눈물이 더반히쏫다 다입안에서『몰나요』하여보앗나 만그소리는 엉기어 버릴뿐이요 나오지는 아니한다

『울긴왜울어못난것……』

쑥지럼하는 형의음성에도 눈물은커지엇다 확실히 그러하엿다 그들은 잠시간 말이업섯다 부엌의도마소리도 이케는 그첫다



基浩……李[illegible]
善永……金[illegible]